

문화소식

세계 불교서화 대전

아세아서화협회는 불교문화에
술의 육성·발전을 위해 20일까
지 '2000년 세계불교서화대전'
을 개최한다.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불자
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작
품 내용이나 형식은 자유다. 성
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성인부는
화선지 반절 또는 정지 규격으
로, 학생부의 경우 초등학교 4학
년까지는 1/4절지, 5학년에서 대
학생은 반절지 규격으로 작품을
내어낸다. (02)313-0756

전통사찰김치 대축제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강
당에서 '전통사찰김치 대축제'를
연다. 연구소 개원 8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정도 운문
사의 과일김치, 예산 수덕사의
가지소박이, 양산 봉도사의 풋감
김치 등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는
전통사찰김치 60여 가지가 선보
인다. 전통사찰 쪽 50여 가지도
전시되며 무료식도 할 수 있
다. (02)355-5961-3



음악 문화달력 출시

문화기획단 기바가 2001년 문화
상품으로 음악문화달력(사건)을
내었다. 음악 달인 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 달력은 보통 달력과
는 달리 음악 날짜가 크게 나와
있고, 일력 날짜는 옆에 작게 쓰
여있는 게 특징이다. 각 달이 4면
으로 돼 있으며 그 달을 상징하는
삽화와 24절기·명절에 대한 설명,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일정
을 덧붙였다. (031)919-8941

소아암 환자들기 디너쇼

반야연예인포교단은 21일 오후
6시 부산 동래 허실청 대청홀에
서 불자 소아암 환자들기 디너쇼
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는 원
로극단인 공룡극단의 공룡춤과
병신춤, 가수 김태곤씨의 '머루
와 대래'의 찬불가 음성공연 등
이 펼쳐진다. 또 토크쇼 이미지
를 비롯해 10여명의 불자연예
인이 창조 출연할 예정이다. 수
익금은 전액 조계종 포교원에 기
탁되어 소아암 환자 및 불우이웃
을 돕는데 사용된다.

'눈에 띄네'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 연하장과 카드에는 부처님 말씀이나 경구 등을 한쪽에 옮겨 놓은 것도 있어 문서포교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카드나 편지지를 이용하지 않고 좀 특이한 새해 인사
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다. 약간의 전화료
만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와 카드를
보낼 수 있다.
불교정보센터에서
는 이달 중순경에 인
터넷을 이용한 이메일 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하고 싶은 내
용에 걸맞는 그림을 선택한 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적 사연도 쓸 수 있다. 부처님 오신날 캐릭터를
비롯해 원성스님의 동승 그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 등이 담긴
카드도 이미 나와 있다.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불교 연하장과 카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
물고 있지만 앞으로 불교포교의 새로운 분야로 계속 발달할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경구 적어 문서포교 인터넷카드도 선보여

불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창작
무용이 모처럼 무대에 오른다.
정해진 무용단의 단장 정혜진씨는
13~14일 국립극단인 예악당에서 개
인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의
주요작품은 불교 창작무 '무애',
'무애'는 '남의 침묵' 알 수 없
어요' '나뭇배와 행인' 등 만해 한
용운 스님의 시에 담긴 정신세계를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용으로 지난 11월 열린 제22회 서울 무용제에
서 대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안무상(정혜진)과 연기상(재명신)까
지 휩쓸어 명실공히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탐구의 과정을 한국의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면서도 자칫 추상적으로
흐물 수 있는 내용을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위주
로 잘 풀어갔다든 것이다.
신선한 창작무용의 경연장인 서울 무용제에는 올해 21개 팀이 참
가,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경쟁 부문에 올랐다. (02)752-7739
권형진 기자

불교창작무 '무애' 만해 詩정신 춤으로 만난다

불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창작
무용이 모처럼 무대에 오른다.
정해진 무용단의 단장 정혜진씨는
13~14일 국립극단인 예악당에서 개
인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의
주요작품은 불교 창작무 '무애',
'무애'는 '남의 침묵' 알 수 없
어요' '나뭇배와 행인' 등 만해 한
용운 스님의 시에 담긴 정신세계를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용으로 지난 11월 열린 제22회 서울 무용제에
서 대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안무상(정혜진)과 연기상(재명신)까
지 휩쓸어 명실공히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탐구의 과정을 한국의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면서도 자칫 추상적으로
흐물 수 있는 내용을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위주
로 잘 풀어갔다든 것이다.
신선한 창작무용의 경연장인 서울 무용제에는 올해 21개 팀이 참
가,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경쟁 부문에 올랐다. (02)752-7739
권형진 기자

선재스님 '약이 되는 사찰음식전'

8·9일 동국대 상록원

불교TV '푸른 맛 푸른 요리' 진행
자로 널리 알려진 사찰음식연구가
선재스님이 '제1회 약이 되는 사찰
음식전'을 8·9일 동국대 상록원 3
층 교직원 식당에서 연다.
사찰의 나무와 풀로 만든 음식 15
가지, 약초 장아찌 30가지, 김치 14가
지, 약차 20가지, 계절식 10가지, 재
활용음식 14가지 등 총 1백여 가지의
전통사찰음식이 전시된다.
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식
과 사찰음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
한다"면서 "사찰음식은 단순한 건강
식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여주 보리사에서 사찰음식 연구와
보급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스님은 "앞으로 경전에 나타난 음식
문화의 연구를 비롯, SBS TV에서 추진
중인 사찰음식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최근 <선재스님의 사
찰음식>(디자인하우스 펴)을 펴냈다.
할라화보와 함께 사계절 무공해 사
찰음식 229가지의 조리법을 실었다.
(02)2260-3056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불교연하장

새 천년의 실례임도 잠시, 어느 듯 200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카드를 주고받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통신수단의 발달로 갈수록 잊혀져 가지만, 글씨의 승결과 마
음이 들어나는 편지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진심을 전하는 수
단이다. 더구나 경기
한파로 사람들의 마
음이 얼어붙은 연
말,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장의 편지는
힘을 준다.
아직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불교용품전문점에서는 벌써 불교 연하장과 카드도 선보이며 불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선보인 카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묵탁을 든 동자승 캐리
터, '묵탁이' 시리즈는 동자인 '묵탁이'가 경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 묵탁을 안고 있는 모습, 꿇어치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전통 한지를 이용한 수공예제품도 선보였다. 한지의 맛을 살려 우리 들
꽃과 벌레 해를 맞아 밤을 친근하게 표현했다. 이밖에 연꽃, 불보살, 스님,
탑 등의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놓은 카드들도 불교연하장판매처에서



동자승·연꽃 등 소재 전통-현대 조화 디자인



우리 전통 서사극 '바리데기' 설화와 서양 고전 '리어왕'이 만나 '생명과 상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총체극 '우루왕'의 한 장면.

총체극 '우루왕' 14-17일 국립극장 공연 "갈등 끝내자" 해원극

지난 10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에 초청받아 반월성터에서 아
외극으로 공연된 총체극 '우루왕'이
실내극으로 다들여 공연된다.
국립극장은 14일부터 1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특별기획
공연으로 '우루왕'을 무대에 올린
다. '우루왕'은 한국의 전통 서사극
가 바리데기 설화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생명과 상상'을 화두로
삼아 재구성한 총체극으로, 김명근
국립극장장이 대본을 쓰고 총감독
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
이다.
'생명과 상상의 환타지'라는 부제
가 붙은 이 연극은 선사시대 한민족
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우루왕
과 3명의 공주 사이에 벌어진 갈등
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인간의 아집과 욕망을 정교한 서
사로 풀어낸 '리어왕'의 비극은 이
작품에서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날다돌며 생명수를
구하려 다니는 '바리데기' 설화와
만나 원작과 전혀 다른 상상의 메시
지로 결말을 맺는다.
극적 구조도 그러하지만 한국의 전
통·현대 예술과 서양식 무대예술이
만나 결치는 음악적 환타지도 빼놓을
수 없는 '우루왕'의 매력이다. 관소
리·굿 등 우리소리가 뮤지컬과 어우
러지고, 국립극장관현악단의 연주와
벌로 선율이 함께 만난다.
국립극단, 창작단, 무용단, 국립관
현악단 등 국립극장 산하단체가 모
두 참여했고, 연극계의 산 증인인 장
민호 씨가 고출승지 역, 명창 안숙선
씨가 갈대부인 역을 맡는 등 최고의
출연진이 동했다.
국립극장측은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세기의 역사를 한
권의 해원극으로 풀어내고 '생명과
상상'의 메시지를 온 인류를 향해
의우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
다. (02)2274-1172
권형진 기자

사이버 문화

선격

선사들 구도송 따라읽기

마음과 경계를 잊은 자리 무어라 말할건가
/갈대꽃과 눈빛은 같은 듯 같지 않네/사방으
로 통한 길은 모하기 그지없어/---강을 다
다녀도 달 그림자 남지 않네
-태고보우 송 중에서-
그윽한 선사의 향내 속에 물려 선사들의
계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을 따라가 보자.
선시를 접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홈페이지
가 가운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
로 '선격' (http://sungag.buddhism.org/seo.
html)이다. 선격에서는 다양한 선문화를 접할
수 있다. 선시에 빠져 구도송을 읊조려 볼 수
도 있고, 선화를 통해서선 붓글에서 피어난
선의 정수를 맛볼 수도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선이란 무엇인가를 시
작으로 화두참구법 등 다양한 선관련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들에게 어렵기만 한 선시를 쉽
게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계승과 선사, 입우
도, 선림보전, 선화, 선사 어록에 이르기까지
선과 관련된 다양한 불교문화를 선보인다. 조
계종의 소외어록인 <선림보전> 7권 중 <심심
명> <중도> 등에 대한 해설서도 마련되어
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mahamall mahamall.co.kr

연옥 합장주

최상급의 연옥만을 엄선하여 만든 보석합장주는 14K 금자석에 부처님 또는 근자가 양각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 상품 설명
금자석과 연옥을 함께 함으로 활력순환을 함축하여 늘 긴장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불자 분을, 직장인 특히 수험생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 고급케이스에 대한 보석감정연구원 김명서사 참여되어 있습니다
- 연옥 합장주 : 90,000원
- 금자석 연옥합장주 : 150,000원

연꽃 불자시계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 남성용 - 여성용 각각 119,000원
- 특별 사은품 (달마시계 * 수일목 100원주)
- 입금 계좌번호
- 국 민 023-21-0559-095 예금주: 이동겨
- 농 협 053-01-232495 예금주: 김희표
- 우체국 010041-02-127274 예금주: 김희표

Tel : 732-1522

새천년의 발원 - 손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시삽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평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유회사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원 고객센터(특이계122168호) / 불교등 살용선인(등록 제098634호)의 연등원력 다수보유업체

팔모주름등 **공단등**

(빨강) (연두) (노랑) (빨강) (노랑) (오색)

팔모조립등 **만월등**

팔모조립등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